



미디어/엔터

궁금한 이야기 #1. 중국

미디어/엔터 이현지 hjlee1@eugenefn.com

중국 시장, 이상과 현실

올해 상반기 엔터사들 주가를 견인한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이다. 한한령 이전인 2016년 3월, 빅뱅이 중국 본토 지역에서 팬미팅 투어만으로 29회, 약 55만명을 모객하며 당시 콘서트 및 MD 합산 매출로 약 360억원을 벌어들였는데, 당시 평균 티켓 가격은 약 75,000원으로 시장 규모 차이를 고려해 현재 시세로 단순 계산하면 아티스트 당 3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라면, 기획사마다 중국에서 공연할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그룹이 최소 2팀은 된다. 사실 더 많다. 즉, 열리기만 한다면 또 다른 매출 업사이드가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만의 이상이 아닌 점은 올해 들어 중국에서도 시장 개방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텐센트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지분 전량을 확보하며 에스엠의 3대 주주(9.7%)로 올라섰고, 텐센트 뮤직은 실적 발표 자료에서 에스엠, 카카오엔터, 스타쉽, 와이지엔터 등 한국 엔터사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다. 어찌 보면 중국 시장 열광은 당연하다.

숫자적 움직임 말고, 진짜 움직임은 언제쯤 보일까?

다만,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 한한령 이후 지난 8년 동안 중국에서 공연을 진행한 한국 국적 가수는 래퍼 '호미들'이 전부이다. 원칙적으로 한국 아티스트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상업 공연용 취업 비자인 Z 비자가 필요한데, 수익을 추구하지 않거나 문화교류 성격이 강한 행사는 M/F 비자(방문/교류비자)로 진행이 가능하다. 언론에 따르면 호미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공연이 예정되었다가도 갑자기 연기/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의 영역인 듯 하다. 이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내로 한국 아티스트의 중국 내 단독 공연을 기대해보지만, 현실적으로 페스티벌 형식의 문화교류 행사는 충분히 기대해볼 법하다. 더불어 각 기획사마다 메가 IP들의 월드투어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고, 특히 쓰촨성과 하이난성은 올해 대형 콘서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를 발판으로 내년 중국 단독 공연 개최 기대감도 무리는 아니라 판단한다. 보수적으로 생각하되 기대감 또한 놓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모를 일이다.

6/27일에 텐센트 뮤직의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엔터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국 시장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주간 주요 뉴스

BTS 완전체 임박, 21일 슈가 소집 해제로 전원 군 복무 마무리

6/10일 RM뷔, 11일 지민-정국이 각각 전역. 6/21일 슈가 소집 해제를 마지막으로 BTS 7인 모두 군 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BTS 완전체 활동 준비도 본격화할 예정

트와이스, 7·8월 韓日 컴백에 채영솔로 데뷔, 새 월드투어까지

트와이스가 7월 정규 4집 발매와 함께 새 월드투어 '디스 이즈 포'에 돌입할 예정. 전 개최지 360도 전면개방 공연으로 역대급 스케일을 예고함. 8월에는 3년 8개월 만의 일본 컴백을, 하반기에는 멤버 채영이 팀 내 4번째 솔로 데뷔를 준비 중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관건은 KT 동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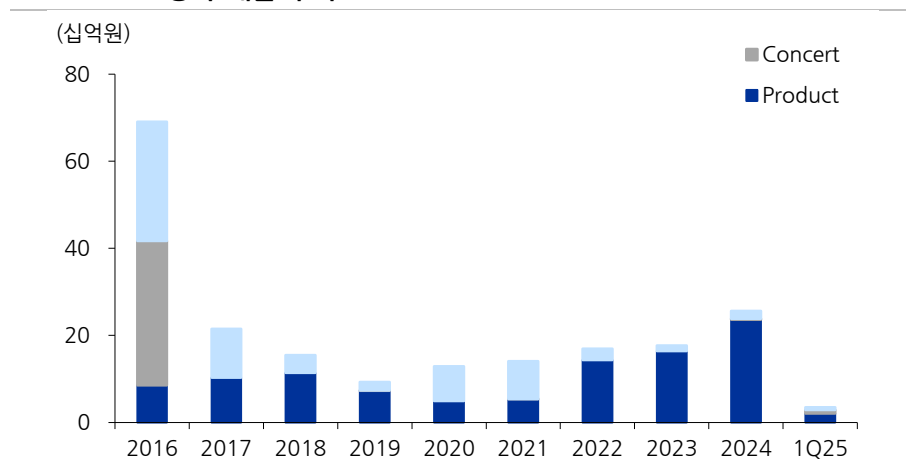
6/10일 공정위가 티빙-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2026년 말까지 티빙, 웨이브 현행 요금제 유지 및 서비스 통합 후 현 수준의 통합요금상품 제공을 조건으로 함. 주요 주주들은 합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 티빙 2대주주인 KT(자회사 KT 스튜디오지니)의 동의가 관건

도표 1. 빅뱅 2016 년 중국 투어(팬미팅) 일정

공연 지역	공연 일정	공연 지역	공연 일정
상하이	3/11~12	다롄	6/26
선전	3/13	충칭	6/30~7/2
정저우	3/17	청두	7/3
난징	3/19	광저우	7/7~9
허페이	3/20	쉬저우	7/10
항저우	3/24	시안	7/12
난징	3/25	뤄양	7/13
창사	3/26	베이징	7/15~17
톈진	6/5	중산	7/21
포산	6/10	홍콩	7/22~24
난닝	6/12	마카오	9/3~4
하얼빈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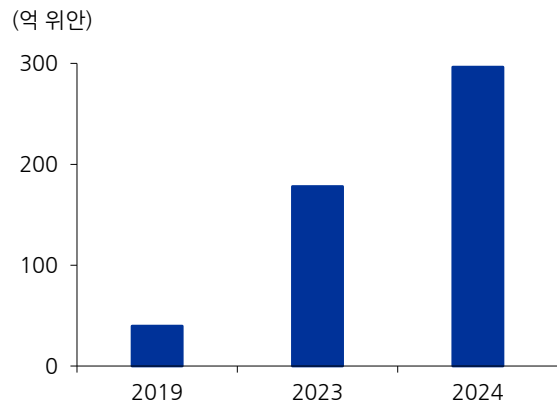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도표 2. YG 중국 매출 추이



자료: YG,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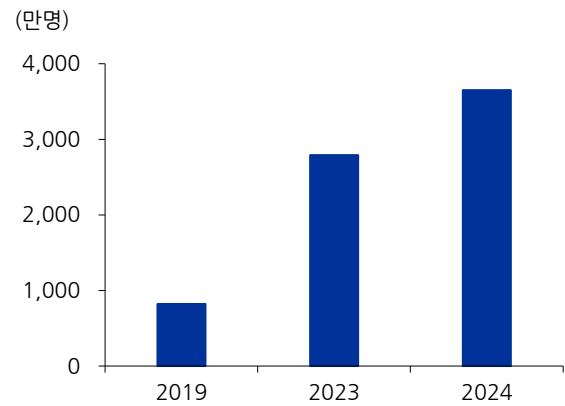
도표 3. 중국 대형 상업성 공연 티켓 판매액



자료: KOCCA, 유진투자증권

참고: 대형 상업 공연 기준은 5천명 이상 관객 수용

도표 4. 중국 대형 상업성 공연 관객 수



자료: KOCCA, 유진투자증권

참고: 대형 상업 공연 기준은 5천명 이상 관객 수용

도표 5. 하이난성 대형 콘서트 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	누적 유료 관객 수	티켓 매출 규모	하이난성 외 지역 관객 비율	지원 금액 (일회성 보조금)
1 단계	2 만명 이상	1,000 만 위안 이상	해당 없음	최대 50 만 위안
2 단계	3 만명 이상	1,500 만 위안 이상	해당 없음	최대 100 만 위안
3 단계	5 만명 이상	2,500 만 위안 이상	40% 초과	200 만 위안
4 단계	10 만명 이상	5,000 만 위안 이상	50% 초과	300 만 위안

자료: KOCCA,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외국 아티스트 중국 내 공연 승인 절차

단계	내용
1 단계	중국 공연기획사 섭외 및 계약 체결
2 단계	공연 기획안 제출 및 문화관광국 공연 허가 신청
3 단계	허가 승인 후 초청장 발행
4 단계	아티스트는 비자(Z/F/M) 신청 (주중 대사관 제출)
5 단계	입국 후 현지 체류등록, 필요 시 공연 전 현장 검열 진행

자료: 언론종합,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5.03.31 기준)